

News

'연장에 연장, 또 연장' 증기·소상공인 대출상환 연기 100만건 훌쩍

이코노미스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지원이 1년 6개월 만에 100만건 훌쩍 넘어서...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 지원을 받은 대출 계약이 95만 5,000건으로 대부분 차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도 심화... 금융위, 상환 연기 종료 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 계획

은행 10월 대출연체율 0.25%...전월보다 0.01%p ↑

데일리한국

금융감독원, 10월말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25%... 전월비 0.01%p 높지만 전년동기비 0.09%p 낮아...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2018년 5월 이후 하락 추세... 기업대출 연체율은 0.30%로 전월비 0.01%p 상승... 가계대출 연체율은 0.18%로 전월비 0.01%p 높아져...

은행권 실적잔치에... "챙겨줄 때 나가자"

머니S

은행권, 연말 맞아 인력 감원 바람... 4대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으로 떠난 직원 총 2,073명으로 집계

통상 인력 구조조정은 실적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꺼내는 카드... 그러나 은행들은 양호한 실적만큼 직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세울 수 있어 인력순환의 적기라고 판단

예금금리 2% 시대...모처럼 은행에 돈이 쌓인다

머니투데이

2%대 금리 상품 흔해져... 금리 인상을 맞아 특판도 속속 나왔기 때문... 소비자 예금 유치 경쟁도 치열

금리인상기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 물 들어올때 노 젓는 성격 강해... 유동성규제, 예대출 규제 정상화에 대비해 쌓이는 현금 바기는 분위기

코로나·금소법 여파에 생보업계 TM 채널 위축...교보·흥국생명 초회보험료 급감

글로벌이코노믹

9월까지의 국내 생보사 TM 판매를 통해 거둔 초회보험료는 408억 800만원... 전년동기비 27% 감소... 코로나19 여파와 금소법 시행 영향

보험사별로는 교보생명, 흥국생명의 감소폭이 두드러져... 반면 CM 채널은 증가... 동기간 CM채널 초회보험료는 318억 6,900만원

정기예금과 금리 별 차이없네... 저축보험 인기 식을까

헤럴드경제

주요 생보사의 저축보험 공시이율 2~2.5%로 거의 제자리... 은행이나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오르는 것과는 대조적

금리격차가 좁아지면 저축보험 수요가 은행이나 저축은행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예상... 다만 업계에서는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 회계상 부채이기 때문

'1세대 VC' KTB네트워크, 16일 코스닥 상장

아시아경제

KTB금융그룹 계열사 KTB네트워크, 16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 국내외 증시에서 300여건의 IPO실적 낸 VC

비바리퍼블리카, 우아한형제들 등 스타트업에 투자해와... 공모가는 5,800원

'카카오페이증권 MTS' 내년 초 출격...'주린이·고수 겨냥'

한국경제

카카오페이증권, 내년초 MTS 처음 선보일 계획... 출범 2년 만에 진정한 증권사로 거듭나는 셈

게임체인저가 되는 것이 목표... 초보투자자까지가 고객군 타겟... 모회사 카카오페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예고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